



NH농협은행, 금융소비자보호부문 농촌 일손돕기 진행
NH농협은행은 지난 2일 금융소비자보호부문 임직원 봉사단이 경기도 양평군 청운면 다대리에 위치한 자매결연 농가를 찾아 일손돕기를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 NH농협은행 강문철 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오른쪽에서 네번째)와 직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농협은행

KT 광화문 구사옥, 내년 리모델링 시작

2023년 하반기 완공 예정

서울 광화문 KT 웨스트 사옥이 내년 7월부터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한다.

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의힘 조명희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KT는 광화문 웨스트 빌딩 건물 노후화로 내년 7월 리모델링에 착공해 2023년 하반기 완공할 예정이다.

KT 웨스트 빌딩은 1986년 세워졌다. 지하 3층~지상 15층 규모로 토지면적은 8349㎡다. 이 중 3개 층은 정부소유다.



KT 광화문사옥 리모델링 조감도.

이 부지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대공방어 협조 구역으로 분류돼 재건축 대신 부분적인 유지 보수만 허용됐으나 최근 노후화가 심해져 리모델링을 하게 됐다. 리모델링은 희망건축이 맡는다. /김나인 기자 silkni@



한국발명진흥회, 소셜리레이 핸드인핸드 캠페인 동참
한국발명진흥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을 돕기 위해 소셜리레이 핸드인핸드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3일 밝혔다.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의 지목을 받아 캠페인에 참여하게 된 한국발명진흥회 고준호 상근부회장은 사회적경제기업상품물(e-store 36.5+)을 통해 구매한 선물을 전달할 예정이다. /한국발명진흥회



롯데칠성음료, NCSI 음료부문 8년 연속 1위
롯데칠성음료가 3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0 NCSI(국가고객만족도) 위 기업 인증' (국가고객만족도) 1위 기업 시상식'에서 8년 연속 음료 부문 단독 1위, 5년 연속 소주 부문 1위 기업에 선정되어 인증패를 받았다. 이번 조사에서 롯데칠성음료는 세부 항목인 고객의 기대수준, 인지도, 인지가치, 고객충성도 및 고객유지율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음료 및 소주 부문에서 단독 1위를 차지했다. /롯데칠성음료

할리스에프앤비, 신유정 신임대표이사 취임

커피전문기업 할리스커피를 운영하는 할리스에프앤비가 신임 대표이사로서 신유정 브랜드전략본부 이사(사진)가 취임했다고 3일 밝혔다.

신유정 대표이사는 2018년 할리스에프앤비에 브랜드전략본부장으로 입사했다. 할리스커피 R&D, 마케팅, 품질



경영, 교육팀을 진두지휘하며 브랜드 위상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해 입사 후 2년 반만에 대표이사 자리에 올랐다. /조효정 기자 princess@

창작스튜디오에 관한 단상



홍경안 역
시시일각

하나의 기회이면서 예술가들의 유목적 삶을 증명하는 곳인 창작스튜디오. 문득 창작스튜디오에 관한 단상이 스친다. 아마 입주작가 공모가 여기저기 뜨고 있는데, 머잖아 누군가는 새롭게 입주하고 혹자는 다시 집을 싸야 하는 과정을 25년째 보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창작스튜디오란 일정 기간 동안 다양한 예술가들이 입주해 창작을 하거나 예술교류, 전시, 학술활동 등이 가능한 공간을 말한다. 여기엔 작업을 위한 시간과 공간을 포함해 여러 형태의 커뮤니티를 통한 예술창작지원 프로그램인 레지던시(Residency) 개념도 들어 있다.

1990년대 중반 처음 등장한 창작스튜디오는 현재 전국적으로 150여개를 웃돈다. 목적은 예술인들의 열악한 창작 기반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돕고, 공간을 거점으로 폭넓은 사회적 관계를 도모하는 예술가 육성에 있다. 운영 주체는 지방자치단체가 큰 부분을 차지한다. 대략 전체의 40%를 넘는다.

운영방식과 프로그램은 대체로 대동소이하다. 예술·문화 프로젝트를 통한

예술적 성과를 지향한다는 공통점 아래 짧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3년 미만을 입주 기간으로 한다. 거주 및 시설, 제작비용을 지원하고, 비평가 매칭 프로그램을 포함한 다양한 학술행사, 오픈스튜디오, 전시, 아카이브, 국제교류네트워크, 예술가 해외 파견, 시민 대상 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구동시킨다.

내용상의 변별 부족은 창작스튜디오가 비판받는 배경이다. 특히 국민 세금을 투입하는 지자체들은 예술가들이 주민 문화향유에 소극적이라며 예산낭비라는 지적도 내놓는다. 그렇다. 실제로 스튜디오 간 차별점은 희미한 부분이 있다. 때문에 특성과 전략은 창작스튜디오에 있어 언제나 중요한 고민이자 과제다.

하지만 일부 프로그램의 경우 오랜 경험에 의해 검증된 것이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거의 모든 레지던시들이 진행하는 결과보고전은 입주당시 작업한 창작물을 가장 먼저 선보이는 자리이다. 오픈스튜디오와 매칭 프로그램은 예술계 관계자들과 지역 주민들이 작품을 매개로 소통하는 시간이다. 굳이 버릴 필요 없는 프로그램인 셈이다.

주민 문화향유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지자체들의 불만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 스튜디오의 설립 목적은 창작 진흥이라는 본질이 우선하기 때문이다. 물

론 2000년대 초반 이후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거꾸집으로서의 책임과 대민 소통의 매개로서의 위치를 요구받고 있음을 모르진 않는다. 다만 작가 창작실현의 심화라는 본연의 모습은 무엇과도 교환될 수 없는 가치이다.

창작스튜디오와 관련해 오히려 재고되어야 할 부분은 지자체의 정책목표가 바뀔 때마다 요동치는 시스템이다. 산하기관이 다수이다 보니 작은 입김에도 갈대처럼 흔들린다. 이 밖에도 최근 부쩍 회자되는 기초생활문화시설로의 설정을 비롯해, 입주 작가들이 대외적 효과가 강조되는 프로그램에 동원돼 예술과 작가 자체가 도구화되는 상황 역시 고찰의 여지가 있다.

더구나 지역을 말하지만 지역에 정착하기 어려운 단기 입주를 통해 예술가들이 지역사회에 개입할 수 있다는 운영기관의 발상, 단발성임에도 불구하고 예술가들의 지역참여가 궁극적으로는 도시재생이라는 보다 큰 흐름에도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믿는 지자체의 막연한 신념 또한 다시 되돌아봐야 한다.

이와 같은 부정적 단면들이 내년엔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을지 모르겠다. 적어도 특정 수단으로서의 예술가상을 그럴수록 예술의 자율성은 위축된다는 것만이라도 기억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미술평론가(DMZ문화예술매경 예술감독)

아이들과미래재단 이대목동 의료진에 격려물품 전달

코로나 장기화 따른 응원 메시지
홍삼·로션 등 담긴 40박스 기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힘쓰는 이대목동병원 의료진에게 응원 메시지와 격려물품이 전달됐다.

이대목동병원은 최근 사단복지법인 아이들과미래재단이 홍삼, 마스크팩, 로션, 족욕 패치, 물티슈 등이 담긴 선물 총 40박스를 기부했다고 3일 밝혔다.

아이들과미래재단은 이전에도 이대목동병원에 음압설비를 갖춘 위킹스루 검진 부스를 기부, 의료진과 검사자가 안전하게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준 바 있다.

아이들과미래재단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지만 그나마 통제 가능한 수준인 것은 의료진의 헌신과 노력 덕분"이라며 감사의 뜻을 전



정혜경 이대목동병원 진료부원장, 홍영선 내과 과장, 유재두 병원장, 현석경 간호부원장(왼쪽부터)이 아이들과미래재단이 기부한 선물을 받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했다.

이대목동병원은 서울시가 지정한 코로나19 중증응급진료센터로서 코로나19 사태 초기부터 안심진료소와 선별진료소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지난 9월부터는 '중증환자 전담 치료 병상'을 유지하며 중증 코로나 환자 치료도 진행 중이다.

유재두 이대목동병원장은 "방역 최전방에서 코로나19의 지역전파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의료진을 비롯한 전 교직원의 노고를 알아주는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는 날까지 맡은 바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selee@metroseoul.co.kr

인사

- ◆기획재정부 ◇국장급 직무대리 △대변인(직무대리) 김동일
-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KIST 총령강소특구운영사업단 강소특구기획실장 김범수 △KIST 총령강소특구운영사업단 사업기획팀장 서노엘
- ◆강스탬바이오텍 △사장 나중천 △임상개발본부장 배요한
- ◆대전MBC △신사업추진담당장 신영환 △미디어전략국장 이재근 △경영국장 김기술국장 우

경수

- ◆한국MSD △항암제사업부 총괄 부서장 김성필

부음

- ▲허준화씨 별세, 이진한(조선영상비전 부장)·이정훈(개인사업)·이경애씨 모친상, 최창(이가건축사사무소 상무)씨 장모상, 안서정(드라마작가)·이미정(인천우체국 팀장)씨 시모상 = 2일 오후 10시 40분,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8호, 발인 5일 오전 9시. 02-2072-2027
- ▲김하섭씨 별세, 안미모(강원도의원)씨 모친

상, 배연호(연남뉴스 강원취재본부 부장) 장모상 = 3일 오전 3시 45분, 강원대병원 장례식장 1층 VIP 2호실, 발인 5일 오전 6시. 010-5967-9751, 033-254-5611

▲이상완(전 삼성전자 사장)씨 별세, 김명희씨 남편상, 이승훈(삼성전자 사원)·이지훈(서울아산병원 연구원)·이정훈씨 부친상, 정일영(하버드대 연구원)·송민규(워싱턴주립대 교수)씨 장인상, 이상운(효성 부회장)·이상숙·이상철(동화 대표)·이상범(한라시녹스 대표)씨 형제상 = 3일 오전 1시 15분,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7호실, 발인 6일 오전 7시. 010-4842-9413